『기독교사회윤리』 제64집
(2026) 399~418

평양 숭실대학 기계창(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운영과 윤기화 장로의 윤리적 리더십 연구

윤성숙(숭실대학교 박사과정)
최은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관계문헌고찰**
1. 평양 숭실대학 기계창(機械廠, 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2. 윤기화 장로의 개괄적 삶

III. **윤기화 장로의 윤리적 리더십**
1. 환대(Hospitality)를 통한 공동체 돌봄의 윤리적 리더십
2. 신앙에 기반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윤리적 용기
3. 윤기화의 윤리적 리더십의 의미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4.13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at the Pyongyang Soongsil College and the Ethical Leadership of Elder Yun Gi-hwa

Ph. D. Candidate, Yoon Sung Sook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Choi, Eun Soo (Soongsil Universit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relied on Korean lay assistants to navigate linguistic and cultural barriers, yet their leadership has been largely overlooked. This study examines Elder Yun Gi-hwa, a lay assistant at 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of Soongsil College,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practice of his ethical leadership.

Using a thematic oral life history approach, the study draws on testimonies, archives, and artifacts. It finds that Yun's leadership was rooted in biblical resilience, communal care, and moral courage under colonial rule, highlighting the vital role of Korean lay leaders in sustaining early Protestant missions.

Key words: Early Protestant missions, lay assistants, Anna Davis Industrial Shop, Robert McMurtrie, Elder Yun Gi-hwa, ethical leadership.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19세기 말 조선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격변을 피할 수 없었다.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1905), 그리고 을사늑약(1905)을 거쳐 1910년 일본에 강제 병합된 이후 조선은 35년간 식민 지배를 경험하며 국가 주권과 사회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1]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한국전쟁(1950-1953)을 겪으며 국가 기반이 붕괴되는 시련을 맞았으나, 이러한 연속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특히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경제·문화·기술 영역에서도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전환의 배경에는 초기 기독교의 수용과 선교 확산,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지속적인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 선교는 1884년 로버트 매클레이(Robert S. Maclay)의 내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2] 1886년 이후 해외 선교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영향으로 다수의 젊은 서구 선교사들이 조선에 파송되었다.[3] 김승태, 박혜진 (1996)에 따르면, 1884년부터 1984년까지 100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는 총 2,956명에 이르며, 이 중 1954년 이전에 내한한 선교사는 1,529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미국 선교사가 69.3%를 차지하여 한국 선교에서 미국 교단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4]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들

1) 박정신, 『숭실과 기독교』(서울: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129.
2) 김칠성,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 「한국교회사학회」 38(2014), 197-199.
3) 조정환, "미국의 '학생자원운동'과 해외 선교의 관계성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9.
4) 장성진, "선교사의 문화: 초기 내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과 한국인들과의 문화

www.kci.go.kr

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사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운 존재가 바로 한국인 평신도 조력자들이었다.[5] 한국 선교 초기의 평신도 조력자들은 조사(助師), 영수(領袖), 권서인, 전도부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성경 판매와 복음 전파, 교리 교육, 교회 개척과 운영, 순회 심방, 선교사 지원 등 선교 사역 전반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6] 이들은 선교사의 어학 교사와 길잡이 역할까지 수행한 숨은 동역자로서, 단순한 보조 인력을 넘어 미자립 교회 환경 속에서 영수 제도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하며 지역 교회의 자생력을 이끌었다.[7] 이러한 헌신은 교회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형성과 신앙의 토착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러한 평신도 조력자들의 헌신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전국적인 영적 각성과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며 민족운동적 성격으로 확산되었다. 당시『독립신문』논설에서 서재필은 "크리스도의 교를 착실히 하는 나라들은 제일 강하고 제일 개화되었다"고 언급하며, 기독교 신앙이 조선 사회의 도덕적 재건과 근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8] 절망과 억압의 시대 속에서 복음은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종교를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와 공동체적 희망을 제공하였으며,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평신도 조력자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통과하며 윤리적 실천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

적 관계(1884-1945),"「기독교와 문화(구한국기독교 문화연구)」16(2021), 47-80.

5) 김병희, "초기 한국 장로교 대구·경북 지방 조사의 역할과 활동,"「역사신학논총」36(2020), 177-180.

6) Ewy, P. W., *Daily Life with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Seoul, Korea 1903-1905* (Colorado Springs: Esther Foundation, 2017), 23-24.

7) 강석진, "선교사들의 길잡이와 동역자인 조사와 영수의 사역,"『기독일보』2021년 11월 9일자, 오피니언 칼럼.

8) 장성진, "선교사의 문화: 초기 내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과 한국인들과의 문화적 관계(1884-1945),"「기독교와 문화(구한국기독교문화연구)」16(2021), 47-80.

www.kci.go.kr

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평양 숭실대학교 부설 기계창(機械廠, 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안라공업소)을 중심으로 활동한 한국인 평신도 조력자 윤기화 장로의 생애와 봉사 활동을 통해, 한국 선교 초기 평신도 조력자의 윤리적 리더십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교사 중심, 혹은 엘리트 지도자 중심의 역사 서술을 넘어, 한인 평신도 조력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 선교 현장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이야기성(narrativity), 시간성(temporality), 주관성(subjectivity)을 핵심 분석 개념으로 삼았다.[9] 또한 주제 중심적 구술 생애사(Thematic Oral Life History) 접근을 활용하여,[10] 윤기화 장로의 봉사 활동에 내재된 윤리적 리더십의 실천 양상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구술 자료뿐 아니라 원본사진, 유물(성경), 미 북장로교 선교 사료, 평양노회 사기 와 조선 장로회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서사를 역사적 ·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에서 평신도 조력자의 역할과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국 초기 선교 조력자의 역할과 그들이 미친 영향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2. 윤기화 장로의 생애를 통해 그가 역경을 극복하고 선교에 기여하게 된 윤리적 리더십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3. 윤기화 장로의 윤리적 리더십이 한국 선교 역사에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9) 공기인,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 정체성 변화 연구"(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1.

10) 박경용,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 생애사 연구 현황과 방법," 「아태연구」 21(2014), 20.

www.kci.go.kr

II. 관계문헌고찰

본 연구는 윤기화(그림 1)가 외국인 기술 선교사 로버트 맥머트리(Robert McMurtrie(1864-1946), 한국명: 맹로법)와의 협력 속에서 평양 숭실대 기계창(그림2) 선교를 수행하며(그림4), 선교 현장에서 발생한 언어·문화적 차이와 구조 적 제약, 가치 갈등을 윤리적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협력과 발전을 이루어 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역할과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한다.[11]

〈그림 1〉 윤기화 장로

〈그림 2〉 기계창 "T" 건물

〈그림 3〉 윤기화(가운데)와 학생들

〈그림 4〉 맹로법과 함께(맨 왼편)

11) 장성진, "선교사의 문화: 초기 내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과 한국인들과의 문화적 관계(1884-1945)," 50.

www.kci.go.kr

1. 평양 숭실대학 기계창 (機械廠, 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

한국 최초의 대학인 평양 숭실대학교는 베어드(William M. Baird, 배위량) 선교사가 1897년 숭실학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 선교 정책은 교회 설립을 우선시하였기에 교육 선교는 실험적 선교로 간주되어 재정적 후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베어드는 평양 교육 선교가 자조(自助) 운영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회를 섬길 실천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학생 다수는 농민과 평민의 자녀로 학비 마련이 어려웠으며, 이는 교회의 85%가 농촌에 분포한 현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베어드는 미국 파크대학교와 포이네트학교의 자조 교육을 모델을 참고하여,[12] 인쇄실 운영, 운동장 관리, 노동, 지도 제작, 문서 필사, 짚신 제작,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자조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교육 비전은 실용적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13] 기계창은 1902년 인쇄업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학생 자조 교육과 기술 교육의 확대를 위해 베어드의 동료 그레함 리(Graham Lee)선교사가 록 아일랜드 브로드웨이 장로교회(Rock Island Broadway Presbyterian Church, Ilinois) 장로이자 친구인 사무엘 데이비스(Samuel Davis)로부터 5,000달러의 후원을 받아 “T”자형 기계창을(그림 2) 건립하였다.[14] 기계창 운영은 1907년 12월 24일 기술 선교사로 내한한 데이비스의 친구인 맹로법의 합류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15] 데이비스 장로는 맹로법을 기계창(機械廠) 책임자로 추천하며 파송 비용을 부담하였고, 숭실학교가 1938년 신사

12) 이원, 『맹로법 과 기계창』(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7), 65.
13) Baird, Richard, 『윌리엄 베어드 (William M. Baird)』(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6), 233, 218, 215, 262-266, 254.
14)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100년사』(서울: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113, 250-251.
15) 이원, 『맹로법과 기계창』 15.

www.kci.go.kr

참배로 자진 폐교할 때까지 약 30년간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창은 그의 부인을 기념하여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업소(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s)'라 명명되었다.[16] 맹로법의 리더십은 투철한 신앙, 인격,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전문적 기술 역량에 기반한 합리적인 리더십이었다. 1910년 이후 기계창은 단조, 주조, 제관, 목공, 농기구 및 학교 기물 제작 · 수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목공, 철공, 주물, 유리공 등 다양한 기술 교육을 통해 한국 산학협력의 효시로 평가받게 되었다.[17] 평양 대부흥기에는 교회 종과 목조 타워 제작, 선교사 주택과 가재도구를 제작 · 수리 등을 통해 선교와 지역사회를 지원했다. 연간 약 50-100명의 학생들은 근로를 통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충당하며 근로정신과 자립심을 함양하였으나, 이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 학교는 숙식 · 교재 · 의복 · 수업료를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노동 수입의 절반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자립, 자치, 자전 원리를 반영한 것이었다.[18] 1921년에는 루츠(D. N. Lutz) 선교사가 농과를 신설하여 농업 · 낙농업 · 과수재배를 발전시켰다. 기계창은 단순 기술 교육 기관을 넘어 노동을 통한 신앙 훈련과 자립정신을 함양한 산업 선교기관으로 기능하였으며, 이곳을 거쳐 한경직, 방지일, 김형남, 현재명, 우호익, 김성호, 김준민 등 수많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19]

16)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숭실대학교100년사』, 250-251.
17) 숭실홍보팀, '우리나라 산학 협력의 효시, 평양 숭실 기계창', pr@ssu.ac.kr. 2014. 4. 15.
18) Baird, Richard,『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 233, 218, 215, 262-266, 254.
19) 이원,『맹로법과 기계창』, 47, 65-66, 70, 79-81, 87-95.

www.kci.go.kr

2. 윤기화의 개괄적 삶

윤기화(1880-1958, 그림 1)는 1880년 12월 3일 평양시 창전리 51번지에서 윤치선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부모 슬하에서 한학과 신학(新學) 을 두루 수학하였으나1895년 당시 16세에 부친을 여의었고, 이듬해 17세에 모친을 여의었다.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숙부 댁에서 수년간 동거하며 동생들을 돌보는 가정적 책임을 감당하였다.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달구지 제작 · 판매를 통해 목재상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 결혼 후에는 두 차례의 배우자 사별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는 등 불우한 개인사를 경험하였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1908년 장대현교회 이길함(Graham Lee) 목사의 전도로 신앙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였고, 1909년 9월에 학습을 거쳐 1910년 9월에 이길함 목사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20] 1911년 4월 19일 서문밖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1913년 1월8일에 집사로 선정되고, 4월 4일에 영수로 택임되었으며, [21] "1914년 6월 16일에 평양신학교에서 열린 평남 노회 제 6회의 시취를 거쳐 장로안수식 (長老按手式)을 허락" 해서[22] 1914년 7월 5일 장로로 장립(將立)되었다. 이후 주일학교 남유년부장 등으로 섬기며 [23]서문밖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로 봉사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길선주, 강규찬, 조만식 외 17명과 함께 참여하여 평양파출소의 일장기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되어 약1년간 복역(服役)하고,[24] 1920년 2월에 출옥하였다. 1921년에는 서문밖교회 예배당 건축에 건축위원으로 참여하여 도식위원(圖式委員)이었

20) 윤명호(막내아들) 구술 인터뷰 축어록, 2024년 11월 13일, 미출판 연구자료.
21)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 사기』(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3), 66-67.
22) 양전백, 함태영, 김영훈, 『朝鮮 예수敎 長老會史記下』(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216-217.
23)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 사기』 66-67.
24) 양전백, 함태영, 김영훈, 『朝鮮 예수敎 長老會史記下』 251-252.

www.kci.go.kr

던 배위량, 김선두, 양인 등과 함께 예배당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교회의 물리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25] 또한40여 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등 초기 평신도 지도자의 모범을 보였다. 윤기화의 성품과 열심을 보신 당시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맹로법 (그림 4)과 함께 숭실대학 기계창에서 첫 번째 조력자로 수년간 동역하였으며, 영어에 능통한 신학 수학자로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26] 1933년 맹로법 선교사 은퇴 이후에는 기계창 총괄 책임자로서[27] 학생들의 자립과 기술 교육을 이끌며 신앙과 산업이 결합된 선교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는1938년 숭실대 자진 폐교 시점까지 기관을 이끌며 많은 학생들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았다(그림 3).[28] 한국전쟁 시기1.4 후퇴이후 제주도와 부산으로 피난하여 피란민 제주읍 교회(담임목사 이환수(李煥秀), 김재호 (金載湖))[29]와 부산 서교회(구 서문밖교회)의 재건에 헌신하였으며, 1958년 4월 3일 부산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30] 그는 3.1운동 참여 공로는 201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으로 추서되었다.[31] 윤기화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며 말씀을 삶으로 구현한 인물로 평가된다.

---

25)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 사기』69, 70.
26) 유정실(외증손녀), 심층 인터뷰 축어록. 2025년 06월14일, 미출판 연구자료.
27) 이원,『맹로법과 기계창』144.
28) 방지일,『나의 나 됨』(서울: 홍성사, 2013), 264-265.
29) 박용규,『제주 기독교회사』(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23), 500.
30) 윤명호(막내아들) 구술 인터뷰 축어록, 2024년 04월 22일, 미출판 연구자료.
31) 권대웅, 김도훈, 김도형, 황민호 ,『독립유공자 공훈 록』20 (서울: 국가 보훈처, 2011), 334.

www.kci.go.kr

III. 윤기화의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적인 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모범적으로 시연하고, 의사결정과 소통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리더십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직성, 신뢰성, 공정성, 배려와 같은 가치가 리더의 행동을 통해 구현될 때, 리더가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 모델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윤리적 리더는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며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끈다. 하이페츠(Heifetz)의 적응적 리더십은 리더를 문제 해결자가 아닌, 가치 충돌과 불확실성 속에서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존재로 이해한다. 윤기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적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체성, 생존의 긴장이 교차하는 현실을 조율하며,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공동체의 적응을 이끌었다. 이는 권위적 지시가 아닌 윤리적 판단과 관계적 신뢰에 기반한 적응적

리더십의 사례라 할 수 있다[32] 그린리프(Greenleaf) 가 섬김(servanthood)을 리더십의 출발점으로 보았다면,[33] 하이페츠(Heifetz)는 변화에의 적응 과정을 핵심으로 보았다. 윤기화의 리더십은 이 두 관점을 결합한 형태로, 섬김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되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가 신앙적 · 윤리적 선택에 직면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리더십이었다.[34] 그의 윤리적 리더십은 일회적 도덕 판단의 차원을 넘어, 말씀(그림 5, 6)에 근거한 신앙과 청렴, 단정이라는 일상적 윤리가 지속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로서, 위기 상

32) Brown, M. E., Treviño, L. K., & Harrison, D. A., "Ethical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for construct development and tes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7(2005), 120.

33) Northouse, P. G.,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7th edition*』Los Angeles: Sage Publication, Inc, 2016. 330, 336-337, 341-347.

34) 최은수 외 12인, 『 뉴 리더십 와이드』(서울: 학지사, 2013), 389.

www.kci.go.kr

황 속에서도 신앙에 뿌리내린 환대와 회복탄력성으로 표출된 삶의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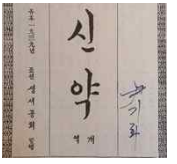
1. 환대(Hospitality)를 통한 공동체 돌봄의 윤리적 리더십

윤기화는 성경적 신앙에 기초한 정의롭고 공정한 지원과 환대를 통해 공동체를 돌보았다. 그는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일상 속 환대로 실천하였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며 형성된 온유함과 연민, 섬김의 자세를 삶 전반에서 구현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상실을 경험한 그는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삶의 습관으로 삼았다. 이정용이 말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사랑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적 행위 주체"의 모습은 윤기화의 삶에 잘 부합한다.[35] 그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배움과 신앙의 기회를 얻도록 했으며, 이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 18).(그림7)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사례였다. 또한 기계창(안라공업소)에서 일하던 직공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고된 노동 속에서도 쉼과 격려를 제공하였고, 매일 아침 찾아오는 거지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환대를 실천하였다. 한국전쟁 피난 중 대동강을 건너야 하는 위기적 상황에서, 쪽배(매세)를 타고 오던 박장로는 수많은 피난민 인파 속에서도 윤기화를 알아보고 그를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도왔다. 이는 과거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윤기화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은혜로 되갚은 행위였다. 이 사건은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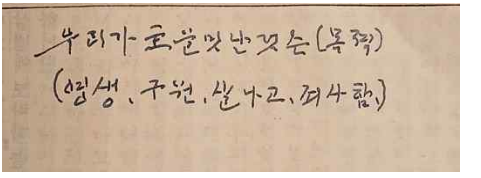
35) 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54-162.

www.kci.go.kr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11:1)는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기화는 이후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 병든 사람들, 친지와 친구, 그리고 교우들에게 환대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쳤다. 이러한 태도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립보서 2:3) (그림8)는 말씀에 근거한 그의 윤리적 신념을 잘 보여준다.[36]



〈그림 5〉 윤기화 성경



〈그림 6〉 윤기화의 신앙 (친필)

〈그림 7〉 딤전 6:18

〈그림 8〉 빌 2:3

한편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맹로법 장로는 엄격하고 단호한 성향 속에서도 공동선을 위해 직설적 소통을 실천한 인물로,[37] 한국어의 한계 속에서 윤기화와의 협력을 통해 사역을 확장하였다. 윤기화는 기계창 운영을 주도하며 외국 선교사의 구조적 한계를 윤리적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보완한 핵심 지도자였고, 맹로법은 그를 도덕적 판단과 실천 역량을 갖춘 주체적 리더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윤기화는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

36) 윤명호(막내아들) 구술 인터뷰 축어록, 2024년 04월 22일, 미출판 연구자료.
37) 이원, 『맹로법과 기계창』17, 23.

www.kci.go.kr

한 맹로법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도, 타지에서 사역하던 그의 개인적 필요를 세심히 돌보는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상호 신뢰 속에서 그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책임과 배려, 실천이 결합된 윤리적 리더십을 삶으로 구현하였다.

2. 신앙에 기반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윤리적 용기

타운즈(Townes)는 이러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품고 정의를 실현할 힘을 행동으로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볼 때, 윤기화가 고통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삶의 태도와 신앙적 지향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윤기화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산 넘어 산'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온 인물로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에밀리 타운즈(Emilie M. Townes)에 따르면, 고통을 경험한 영성을 지닌 사람은 '개인의 완전함(perfection)'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지는 온전함(wholeness)'을 추구한다. 이러한 영성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empathy)과 애통(lamentation)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인식하며 연대(solidarity)를 실천하려는 태도로 확장된다. 타운즈는 이와 같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 삶을 살아 가며, 소망을 품고 정의를 실현할 힘을 행동으로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타운즈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윤기화가 고통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해 온 삶의 태도와 신앙적 지향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38] 윤기화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으며,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여 서문외교회 (西門外敎會)의 김선두 목사, 정일선 장로, 윤기화 장로 와 함께 산정현교회(山亭顯敎會)의 강규

38) 박한별, "한국 전도부인에 대한 윤리적 이해," *Theology of Mission*, 71(2023), 203.

www.kci.go.kr

찬 목사, 조만식 장로 등 16명과 더불어 옥고를 치렀다.[39] 이후 1935년부터 일본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가 본격화되자, 천주교와 감리교는 이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며, 서문외(밖)교회 예배당에서1938년 9월 열린 제27차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 역시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40] 이에 분노한 다수의 서문밖교회 성도들은 1939년 5월 14일 숭실대 강당에서 신광교회를 창립하였고, 윤기화는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41]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교회 분립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윤리적 결단이었다. 이는 신앙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 결정이자, 역사적 억압 속에서도 정의를 향해 행동으로 응답한 윤리적 용기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 윤기화의 윤리적 리더십의 의미

윤기화의 윤리적 리더십의 의미는 개인적 신앙에 기초한 도덕적 원칙을 공동체적 책임과 합리적 판단으로 연결함으로써, 역사적 제약 속에서도 공동체의 지속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다. 그는 권위나 기술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배려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초기 선교 현장에서 무명의 평신도 조력자 또한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기화는 신앙을 개인적 구원 체험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공동체와 다음 세대 속에서 계승되어야 할 윤리적 사명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구원을 일회적 사건이 아닌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신앙인은 그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을 지닌

39) 양전백, 함태영, 김영훈, 『朝鮮 예수敎 長老會史記 下』, 251-252.
40) 박용규, 『제주 기독교회사』, 396.
41) 윤명호(막내아들)구술 인터뷰 축어록, 2024년 02월 02일, 미출판 연구자료.

www.kci.go.kr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교육과 양육에 헌신하게 된 핵심 동력이 되었다. 그의 교육적 리더십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넘어, 신앙적 인격과 책임 윤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기계창에서의 기술 교육은 봉사와 책임이라는 신앙 윤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장이었으며, 기술과 신앙, 노동과 헌신의 통합을 통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윤기화는 세대 간 단절이 아닌 신앙과 역사적 책임의 계승을 지향하며, 교육과 봉사의 전통을 통해 구원사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유산을 남겼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평신도 조력자 윤기화 장로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적 실천과 윤리적 리더십의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식민지라는 구조적 억압 속에서 발현된 그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용기가 어떠한 신앙적 결단과 실천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윤기화의 리더십은 고통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책임있는 선택을 감행하는 윤리적 결단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강인함에 국한하지 않고, 고통의 경험이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로 확장되는 신앙적 역량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타운즈(Townes)가 제시한 '고통을 경험한 영성'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타운즈에 따르면, 고통의 경험은 개인적 완전함(perfection)이 아니라 관계 속 온전함(wholeness)을 지향하게 하며, 공감과 애통을 넘어 책임과 연대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한다. 윤기화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라는 역사적 폭력 앞에서 침묵이나 타협이 아닌 신앙적 저항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

www.kci.go.kr

서 윤리적 실천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었다. 특히1939년 신광교회 창립에 참여한 그의 선택은 제도 교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윤리적 선언이었다. 이는 타협을 거부하는 신앙에 근거한 결단이 역사적 억압 속에서 정의를 향한 행동으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가 선교사 중심의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윤기화와 같은 평신도 조력자들의 윤리적 선택과 헌신적 실천에 의해 지탱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주제 구술 생애사 연구와 해석학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직접 구술 자료가 부재한 인물 연구에 적용 가능한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윤기화의 생애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역사적 고통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 용기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이는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신앙이 개인적 위안이나 제도적 순응에 머물지 않고 정의와 책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윤기화가 태어난 지 144년, 별세한 지 68년이 지난 현재 그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자료적 ·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윤기화를 포함한 평신도 조력자들의 생애사 발굴과 구술사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조력자들의 신앙 유산을 재평가하고, 오늘날 신앙의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대웅, 김도훈, 김도형, 황민호.『독립유공자 공훈 록』20. 서울: 국가 보훈처, 2011. 334.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 박용규.『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 사기』.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3.

강석진. "선교사들의 길잡이와 동역자인 조사와 영수의 사역."『기독일보』. 오피니언 칼럼. 2021년 11월 09일.

공기인.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평양시 노동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병희. "초기 한국 장로교 대구 · 경북지방 조사의 역할과 활동."「역사신학논총」. 36(2020), 177-222.

김승태, 박혜진.『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1996

김칠성.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한국 교회사 학회」38(2014), 197-199.

박경용.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 생애사 연구 현황과 방법."「아태 연구」21 (2014.1), 20.

박정신.『숭실과 기독교』. 서울:숭실대학교 출판국, 2014.

박용규.『제주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23.

박한별. "한국 전도부인에 대한 윤리적 이해." *Theology of Mission.* 71(2023), 182-208.

방지일.『나의 나 됨』. 서울:홍성사, 2013.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숭실대학교100년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숭실홍보팀.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효시, 평양 숭실 기계창." (pr@ssu.ac.kr). 2014. 04.15.

양전백, 함태영, 김영훈, 박용규.『朝鮮 예수敎 長老會史記 下』.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이원.『맹로법과 기계창』.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7.

www.kci.go.kr

장성진. “선교사의 문화: 초기 내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사업과 한국인들 과의 문화적 관계 (1884-1945).”「기독교와 문화(구한국 기독교 문화 연구)」 16(2021), 47-80.

조정환. “미국의 ‘학생자원운동’ 과 해외선교의 관계성 연구.”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최은수, 권기술, 진규동, 손판규, 김민서, 신승원, 김진혁, 박재진, 이미섭, 강찬석, 강영환, 이희, 박시남.『 뉴 리더십 와이드』. 서울: 학지사, 2013.

Baird, Richard.『 윌리엄 베어드 (William M. Baird) 』.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6.

Brown, Michael E., Treviño L.K., Harrison, D.A. . “ Ethical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for construct development and tes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7 (2005). 120.

Ewy, P. W. *Daily Life with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Seoul, Korea 1903-1905*. Colorado Springs: Esther Foundation, 2017.

Lee J. Y.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Northouse, P. G.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7th edition*. Los Angeles: Sage Publication, Inc, 2016.

유정실(외증손녀). (2025. 6. 14). 심층 인터뷰 축어록. 미출판 연구자료.

윤명호(막내아들). (2024. 2. 2). 구술 인터뷰 축어록. 미출판 연구자료.

윤명호(막내아들). (2024. 04. 22). 구술 인터뷰 축어록. 미출판 연구자료.

논문투고일: 2026년 03월 02일
심사개시일: 2026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15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19세기 말 조선에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들은 언어와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인 평신도 조력자들의 협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교사 중심의 서술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리더십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평양 숭실학교 안나 데이비스 기계창에서 활동한 윤기화 장로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의 윤리적 리더십 형성과 실천 양상을 분석한다.

윤기화는 로버트 맥머트리의 핵심 동역자로서 기계창 운영을 주도하며 선교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였다. 주제 구술 생애사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의 리더십은 성경적 신앙에 기반한 회복탄력성, 공동체적 환대, 역사적 위기 속 윤리적 용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개신교 선교가 평신도 조력자의 윤리적 실천에 의해 지속·전개되었음을 밝히고 그 역사적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 평신도 조력자, 안나 데이비스 기계창, 로버트 맥머트리, 윤기화 장로, 윤리적 리더십

www.kci.go.kr